

“간화선은 부처님처럼 사는법 강조한 수행법”



이것이 간화선이다
대혜종교 원저
무비 스님 역
민족사 펴냄
2만9500원

간화선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갖추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알고 생사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최상승 수행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티베트 불교의 금강승 수행과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등에 밀려 간화선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장(書狀)은 당대 지식인들의 수행 질문에 대해 대혜종교(1089-1163) 선사가 간화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간화선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편지글 65편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간화선의 교과서, 지침서라고 한다.

이 책은 (이것이 간화선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간화선의 창시자인 대혜종교 선사가 강조한 간화선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대혜종교 선사는 지식인들의 복잡한 사관 분별을 지혜의 칼로 끊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여 지식의 오염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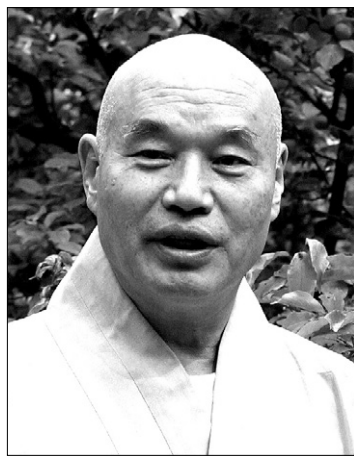
(大慧), 큰 지혜라는 이름처럼, 이 책은 번뇌 망상을 부수고 바른 안목을 갖춰서 화두를 제대로 참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최고의 간화선 지침서다.

대혜 선사는 “이 무(無)자 화두야말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삿된 지견(所知), 삿된 생각(惡覺)을 타파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리에 오직 이 ‘무(無)’ 한 글자만 각인시켜 둔다면 모든 번뇌 망상이 소멸되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무자 화두’를 들고 있지만 다른 여타 화두의 참구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두는 기본적으로 의문형 구조로 되어 있다. ‘뭘까?’ 하고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인데, 요즘의 보편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탐구심’ 또는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왜’ 또는 ‘뭘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마디로 일체의 사관분별(분별의식)이나 알음알이(분석), 또는 논리적·학문적 접근을 중지하고 오로지 ‘왜 무인가?’ ‘무엇이 본래면목일까?’ 하고 즐기차게 의문만 제기해야 한다.

끝까지 물음표(?)를 던져서 ‘뭘까?’ 하고 탐구(생각, 상념)할 뿐, 절대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화두에 대하여 알음알이를 내거나 분석·분별·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혜 선사는 절대 사랑 분별심(알음알음, 알음알이)으로 화두를 참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화두란 관념



대혜종교선사 간화선법 총 망라
‘무’자만 각인시켜도 번뇌 소멸
사랑 분별심으로 화두 참구 안돼

적인 이해, 지식적인 이해, 지능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비 스님의 명쾌한 번역과 통쾌한 해설이 돋보이는 이 책은 제목처럼 그동안 간화선에 대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무비 스님은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서장의 내용과 간화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선사들의 일화와 그때그때 적절한 소재를 인용해 간화선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 유일의 간화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한국 간화선 부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비 스님은 머리말을 통해 “깨달아서 무엇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동하게 하고 타인을 감동하게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천만 번을 깨닫고 1천 7백 공안들을 마치 염주를 꿰듯이 꿰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선(禪)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비스님은 이 책에서 강설을 통해 “충만한 사람들의 병이든 자신을 향해 참구하지 않고 자신 밖을 향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점이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참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方便을 들었다. 그것이 화두라는 것이다. 선불교 초기에는 없었던 방법이지만, 근기가 날로 하열해지면서 그 하열한 근기를 무르익고 성숙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 간화선법(看話禪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불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선법(禪法)은 곧 간화선법이다.”라고 설명한다.

무비 스님이 말하듯 간화선은 우리 삶의 드러난 작용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임을 알고 부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요즘처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간화선은 더욱 더 필요하다. 무비 스님의 생각이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선 중기 무경 자수 선사의 시문집 및 선어록 세 권 출간



무경집
무경 자수 지음 | 김재현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2만6천원

무경실종어록
무경 자수 지음 | 성재현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2만원

불조진심선격초
무경 자수 지음 | 성재현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1만천원

없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 **〈무경실종어록〉**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선문 방편 자유자재 구사

무경집은 유문(1614~1689)의 법계를 이은 무경 자수 선사의 법어와 계승을 엮은 여록이다.

젊어서 불교 외에도 유교와 도교의 전적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이 모두를 일심의 이치로 회통시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스님의 적극적인 행보는 사회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사상적 주도권마저 빼앗겼던 조선 중후기 불교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무경실종어록〉은 제자들에게 내린 법어, 대중법회에서의 법어, 남자와들의 거랑,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표명, 수행 과정에서의 지침, 선과 교의 차이에 대한 논설 등 기존 선종 어록의 양식과 성격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유학자들과의 인격적 교류에 치중하던 동시대 승려들의 문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불조진심선격초〉**
일심 주제로 원융무애 진여방안 논설한 이론서

〈불조진심〉(1734년)의 초목이다. 선사는 부용 영관-형허 휴정-정관 일선-임성 충안-원운 지근-추계 유문으로 이어지는 조선 임제종의 정맥을 계승하였다.

이 책에는 총 19편의 문장과 다섯 편의 논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법신/반야/해탈의 삼덕을 구비한 일심’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쓰였다. 기존 선종 어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런 독특한 이론과 설명은 삼교를 회통하는 원리 연구에 평생 주력 하였던 스님의 사상적 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사회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사상적 주도권마저 유교에 빼앗겼던 조선 중후기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불교를 중심에 두고 기존의 모든 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새롭게 인재를 양성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스님의 행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 **〈무경집〉**
다양한 시체 자유롭게
구사한 탁월한 시승

〈무경집〉은 조선 중기 때 스님인 무경 자수의 문집이다. 무경 자수는 추계 대사에게 배우고 유가와 도가의 서적까지 통달한 인물이며, 30세에 벌써 사방에서 문도가 모여들어 내원암서 강석을 열기도 했다.

대사는 시에 있어 고체 / 근체 / 잡체를 두루 하면서도 잡체에서는 옥련환체나 투춘체나 봉요체 등 여러 형식을 능숙하게 구사하였고, 각 시체에 ‘변체’라 하여 자유롭게 변화를 주기도 했다. 더구나 회문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잡자 11편은 유가 문집에서도 보기 힘든 시 형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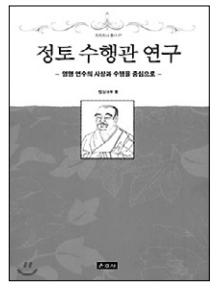
제자를 애도하는 시 〈금화를 애도하다〉는 제자의 죽음을 차라리 자신의 죽음으로 바꿨더라면 이런 슬픔은 없었을 거라는 스스로로서의 간절한 슬픔을 보여주어, 제문 〈죽은 제자 금화를 화장하고 제사 지내는 글〉과 함께 심금을 울린다.

시 〈윤 석사에게 올리다〉에서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구부려 본 적이

정토 수행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물

정토수행관연구

법상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영명 연수는 중국 불교의 대내외적 격동기인 당말 오대에 활동한 법안종의 3대 조사이다.

제교융합과 제쟁경수, 이사원용, 선정쌍수 등 화통불교를 주창함으로써 중국과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풍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선종의 종장임에도 천태, 화엄, 유식 등의 교학이 선과 다르지 않다는 선교일치를 표방했다. 또한 지력과 타력이라는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선과 정토를 융합하는 선정쌍수를 적극 실천했으며, 〈종경록〉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 책은 이런 영명연수의 원융한 사상과 정토 수행관, 그리고 그것이 후세에 끼친 영향과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물

이다. 연수의 정토사상과 수행관은 워낙 다양하고 원융무애하며 그 범위도 방대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력과 타력을 대표하는 선과 열법을 견수하고 일치시키는 연수의 관점을 주목하고 이를 중점 고찰하였다.

연수의 정토관과 수행관은 선의 성도문적 주제성의 지력과 열법의 정토문적 신앙성의 타력이 조화를 이루는 종교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선정쌍수는 선과 열법의 장점을 상실하지 않고 단점을 보완한 수행으로서 불교 수행의 목적인 성불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책은 총 다섯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연수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검토했는데, 먼저 연수의 사상과 수행관의 형성 배경을 조망했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영명연수의 정토관과 수행론의 바탕이 되는 그의 원용 심성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제 4장에서는 연수의 정토관과 수행관에 대해, 제 5장에서는 연수의 정토 수행론, 마지막 제 6장에서는 영명 연수의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김주일 기자

‘개’의 윤회서 배우는 자비심

삼사라이야기

헬렌 마누스 지음 | 줄리 비스 그림 | 김진희 번역
담앤북스 펴냄 | 1만2천원



삼사라는 개의 모습으로 여러 생을 살았다. 어떤 생은 꽤 길었고, 어떤 생은 고작 며칠뿐이었다. 하지만 삼사라는 그런 생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 너머 나지막한 소리가 지나쳐 갈 때면 문득 당황스럽기도 했다. 삼사라는 거리의 개로 태어난 적도 있었다.

누군가 삼사라는 불렀지만 삼사라는 누런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다가 행하니 돌아섰다. 삼사라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낡은 부대 자루 안에서 기지개를 켜던 삼사라는 어느 때보다 몸이 피곤함을 느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삼사라는 낯새 탐지견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태어나 자그마한 눈을 뜨기도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적도 있다. 그의 생은 그렇게 반복 되었다. 그러다 어느 생, 길거리엔 있던 삼사라는 어느 가난한 집 아이의 손에 이끌려 소년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소년은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삼사라는 그 소년의 눈이 되어 준다. 이전 생들과는 무척 달랐다. 삼사라는 그 소년의 눈이 되어주면서 사람이 무엇인지 배푸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삼사라는 소년의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삼사라는 ‘윤회’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삼사라는 처음에는 폭력과 분노로 가득찬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마침내 여러 생을 살면서 우정과 사랑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행복한 곳으로 떠난다.

이 책의 저자는 삼사라는 개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비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불교도인 저자는 그 소재를 윤회(samsara)에서 발견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더욱 따뜻한 그림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열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寒)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찻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 희담석합장주 (남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불편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